| 현불논단 |

불교 아픈 역사는 왜 멈추지 않나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광화문광장 역사물길 연표 오류
불과 1년 전 사건 다시 떠올라
항상 부당한 대우 받아온 불교
불교 미래 위해 넘어가선 안 돼

무제 폐불정책에 맞섰던 스님들
폐불 정책 속에서 사찰 구해내
백곡 처능 '간폐석교소'도 귀감
종교편향에 한국불교만 멍든다

작년, 광화문광장의 역사 기록에 불교 승려는 '보우처벌'이라고 새기고, 천주교 신부는 '김대건 신부 순교'라 새겨 놓아 한숨 짓게 만들었다. 올해도 한(恨)의 한숨은 가중되었다. 근자에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고위인사 임명을 앞두고, 불교계 인사를 배제한 종교편향이라며 성명서를 내었다. 솔직히 필자는 이런 성명에 크게 놀라지 않는다. 늘상 불교는 권력으로부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필자는 '그러든 말든 나만 잘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니 절대 허투루 볼 수 없다.

불교사에서 고려불교는 선교일치가 주된 이슈였다. 수행과 교리 측면을 결합해 어떻게 불교 사상을 발전시키느냐(?)였다.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오면, 입장이 다르다. 즉 조선의 승려들은 유불도일치를 주장했다. 조선이 건국될 때,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가 세워지면서 불교는 찬밥 신세였다. 나라를 좀먹는 폐불론이 제기되면서 구유물의 잔반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다보니 조선의 승려들은 불교가 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리 좀 좋게 봐 달라'고 한 셈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중국사에서 승려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북주의 무제(557~581 재위)가 폐불정책을 실시했다. 이 폐불은 큰 법난 가운데 하나다. 이때, 정영사 혜원(523~592)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무제에게 충고했다. 혜원은 승조(374~414)의 제자로서 〈기신론〉의 주석서를 쓴 학승이며 선사다. 당시 무제에게 향변하는 승려가 없었는데, 혜원만 무제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것이다. 당시 승통(僧統)이었던 담연 법사는 혜원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혜원 스님의 용기는 참다운 호법보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바른 도리는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이 한 목숨,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걱정할 것 없습니다."

또 송나라 진종(998~1022 재위)이 태평흥국사(太平興國寺)를 폐하고, 그 사찰을 창고로 만들 예정이었다. 흥국사에 조서가 전달되는 날, 한 스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온몸으로 항거했다. 황제는 신하에게 칼을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사찰을 폐하는 날, 그 승려가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목을 베어라. 그런데 그 스님이 이 칼을 보고 겁나서 떨거든 목을 베고,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거든 용서해 주어라."

신하가 황제의 명대로 스님에게 칼을 들이댔더니, 스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목을 길게 내밀며 말했다.

"불법을 위해 죽는다면, 칼날을 핥으라고 해도 달게 받겠다."

진종이 이 말을 듣고, 스님의 용기와 기백에 감탄해 사찰을 폐하지 않았다〈인천보감〉. 우리나라에도 이런 승려가 있었다. 조선 중기, 백곡 처능(1617~1680)이다. 18대왕 현종이 폐불 정책을 실시했는데, 비구니 출가를 금하고, 이미 비구니가 된 사람은 환속할 것을 권하거나 명령했다. 또한 문정왕후 내원당으로 5천 비구니를 수용했던 자수원(慈壽院)·인수원(人壽院)을 철폐하고, 선종 사찰 봉은사와 교종 사찰 봉선사까지도 폐하여 승려를 환속시키고, 폐쇄 조치를 취했다. 선사는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라는 8천여 자에 이르는 조선시대 가장 긴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 부당함을 주장했다.

중국 불교사에 네 차례 법난이 있었지만, 2~3년 단기간이다. 조선 500년은 불교의 씨를 말린 긴긴 폐불이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10.27법난이 일어난 것이고, 근자에까지 크고 작은 종교 편향으로 한국불교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다. 어떻게 타개책을 만들어야 할까? 안타까운 현실에 글로나마 울분을 달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웃음으로 치유하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해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쁜 일상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가다 보면 건강에 좋다는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웃는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니 너무 시시하게 들리나요? 예부터 웃음이 보약, 웃음이 명약이라는 말도 있지요.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가득한 사람은 남들보다 건강하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0분 정도 크게 깔깔거리고 웃고 나면 두 시간 동안은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웃음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도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정신과 몸도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여자 코미디언 샌드라는 10년 전에 관절염의 일종인 루퍼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통이 심한 날을 달력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코미디언 공연을 하던 날은 달력에 그 표시가 없었습니다. 바로 웃음을 남에게 전해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고통을 느낄 사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웃음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과의 대화에도 항상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용서보다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여 남으로부터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으로 급기야 무너지고 맙니다.

웃음으로 마음속 긴장과 근심을 털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폴 에그만 교수는 웃을 때는 눈자위 주위를 싸고 있는 안육근과 광대뼈에서 입술의 가장자리를 이어주는 내협골근을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근육은 뇌에서 즐거움의 감정을 지배하는 부분을 자극한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웃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지요. 웃음은 그 자체만으로 즐겁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시 즐거운 감정을 유발시켜 항상 쾌활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尹정부, '출판선교'까지 지원하려 하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11월 22일 발표한 '2023 세종도서 교양·학술 부문 지원사업 추천 결과'는 충격적이다. 세종도서 교양 부문 불교 관련 도서는 5종(종교4·예술1)이었고, 학술 부문은 8종(철학1·종교4·기술과학1·예술2)이 선정됐다. 하지만 교양 부문 종교 분과 37종 중 30종이 기독교 도서였고, 학술 부문 종교 분과 23종 중 13종이 기독교 학술서였다. 각각 4종만이 선정된 불교 도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교양·학술 부문 추천위원의 기독교 편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양 부문 추천위원 212명 중 불교 인사는 2명인데 반해, 기독교 위원은 목사, 신학대학 교수 등 7명에 이른다. 학술 부문 추천위원 80명 중에는 2명이 기독교 인사이지만, 불교 관련 위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출판진흥원 측은 "출판 종수 비례해 선정해 나온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해명 내용은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양서 출판 의욕을 진작시키겠다'는 세종도서의 사업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부문별 출판 종수를 비례해 도서가 선정될 경우 종교출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지분을 가진 기독교 출판계만이 세종도서를 독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출판선교'를 지원하는 행위와 진배없다.

세종도서에 선정되는 불교 도서는 감소 추세다. 2019년 22종, 2020년에는 21종, 2021년에는 19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13종으로 유독 줄었다. 양서로 꼽힐 불교계 출판 도서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며 줄었을 리가 없다. 도리어 출판진흥원 측에 묻고 싶다. 선정 기준은 무엇이길래 기독교 창조론을 소개하는 책이나 미국의 교회 사역 사례, 선교사 이야기가 교양도서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전법 결실엔 교구본사 역할 크다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대학생 포교에 좀처럼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 불교동아리가 없는 대학만 6곳인데다, 이를 경기북부 유일의 교구본사인 봉선사가 혼자서 책임지기엔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봉선사는 청년·대학생 전법이 불교의 미래라는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경동대 불교학생회 창립을 이끌었다. 상월청년회도 5기가 입재하면서 꾸준히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봉선사 주지로 취임한 호산 스님의 원력과 이에 공감한 사부대중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학생 전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월결사의 목표에 따라 한국불교는 교구본사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봉은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첫 워크숍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18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힘을 보태면서 전법의 기틀을 다졌다. 벌써 대구경북엔 17개의 불교학생회가 탄생했다. 봉선사가 경기북부 6개 대학과 소통하고, 경기남부에선 용주사가 4개 대학을 맡아 한층 더 대학생 전법 열기가 높아졌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교구본사중심제를 표방한다.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각 지역 교구본사에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 교육과 포교에 나선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고, 상월결사 정신을 따라 대학생 전법을 위해 사실상 모든 교구본사가 마음을 내었듯 한걸음씩 나아갈 때다. 경기북부처럼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 전법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편집인 : 박재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